

## 제5차 이사회 의사록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   |       |     |
|-------|---|-------|-----|
| 일 시   | `19. 7. 30.(화)<br>14:00~14:40   | 기 록 자 | 구00 |
| 장 소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회의실  |       |     |
| 출석이사  | 홍00 이사장, 주00 대표이사, 권00 이사, 김00 이사, 김0 이사, 조00 이사, 배00 이사(주00팀장 위임참석), 김00 감사, 이00 감사  |       |     |
| 불참이사  | 남00 이사, 백00 이사  |       |     |
| 참 여 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구00 기획관리실장 및 김00 운영지원팀장, 이00 종합재가서비스팀장, 이00 어린이집운영팀장, 김00 이사회담당 주무관 1명<br>서울시 복지정책과 안00 사회서비스운영팀장,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차00 출자출연팀장, 고00 주무관 |       |     |

○ 의 결 사 항

| 의안번호 | 건 명             | 의결내용 | 소관부서  |
|------|-----------------|------|-------|
| 제24호 |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 원안가결 | 기획예산팀 |

○ 회의 결과 : '회의내용' 붙임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

2019년 7월 30일

|       |          |     |          |
|-------|----------|-----|----------|
| 이 사 장 | 홍 0 0(인) | 이 사 | 조 0 0(인) |
| 대표이사  | 주 0 0(인) | 이 사 | 배 0 0(인) |
| 이 사   | 권 0 0(인) | 감 사 | 김 0 0(인) |
| 이 사   | 김 0 0(인) | 감 사 | 이 0 0(인) |
| 이 사   | 김 0 0(인) |     |          |

## □ 회 의 내 용

<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  
원안 가결하다.

- 흥00 이사장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사회서비스원 이사회 개최를 선언하다.
- 흥00 이사장이 구00 실장에게 안전설명을 요청하다.
- 구00 기획관리실장이 의안번호 제24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 구00 실장이 안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올해 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설립운영 해야 할 종합재가센터가 4개에서 5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성동센터가 간호특화형으로 설치되면서 직종별, 직급별 정원조정이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행정직5급을 보시면 1명이 늘었는데 전산직이 꼭 필요한데 없어서 한 명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지원 4급을 보시면 종합재가센터가 4개에서 5개로 늘어나면서 센터장 한 명이 필요해서 한 명을 늘렸습니다. 서비스지원 5급을 보시면 성동센터가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특화형으로 설치되면서 작업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을 채용하기 위해서 9명에서 13명 늘어난 2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서비스지원6급은 초기모델에서는 각 센터에 총무회계담당자가 고려가 안됐었는데 저희 최종 모델에서 각 센터에 총무 회계담당 직원 1명씩을 배치해야 해서 2명에서 6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문서비스 가-나급 직종에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명시했고, 장애인활동지원팀장 2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8명에서 1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가급은 강서센터가 추가되어 254명에서 25명 늘어난 27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장애인활동지원사 다급을 200명에서 46명으로 줄어든 154명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육직은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준비를 위해서 경험 있는 선임교사 한 명이 필요해서 보육5급을 한명 늘리고 보육6급을 한명을 줄이는 조정을 하였습니다.

- 흥00 이사장이 구실장이 정원표와 실제 운영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직제 및 정원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오늘 안전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임원들께 의견 구하다.
- 조00 이사가 두 가지 정도 질문 중심으로 의견을 말씀하다. 활동지원사가 200명에서 154명으로 줄어드는데 이게 종합재가센터가 하나 추가설치 되다보니까 정원 내 조정되는 부분이고 운영위원회에 장애당사자들이 두 노선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한자연하고 한자협하고) 어느

한쪽은 늘렸으면 좋겠다, 어느 한쪽은 줄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축소나 확대에 대한 의견이 없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축소해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이 하나 있으며. 내년에는 장애쪽에 활동지원사 부분은 현 유지나 축소 쪽으로 갈 것인지 내년에는 TO를 보고 좀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다.

두 번째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특히 간호사 부분이 의료법 관련하여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채용해서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 하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찾동에는 간호사를 동주민센터 동장소속이 아니고 보건소 소속으로 채용해서 동사무소에 파견근무 식으로 가고 있고, 이번 7월부터 시행하는 서울돌봄SOS센터는 돌봄센터에서 직접채용을 해서 동장소속으로 두고 운영을 하는데 간호업무가 아닌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돌봄 계획, 의뢰, 연계 이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업무를 정했는데,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의료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됐는지 질문하다.

- 주00 대표이사가 첫 번째 질의하신 것 중에서 관련 장애인당사자 정원 규정의 변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의견수렴을 할 기회는 없었고, 저희가 예상컨대 올해 시작하다보니까 사실 이용자하고 매칭이 되어야 되는 그런 조건에서 보니까 초기에는 다들 조그마한 인력으로 출발했다가 이게 성장을 하게 되면 정원을 맞추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서 원래 정원에 비해서 줄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올해 정원계획으로 본다면 저희는 일단 충분한 규모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이게 내년에는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연말 어느 시점에는 내년도 직제 아래 변동 수정된 것만큼의 정원증원 및 직제증원 이런 것과 관련된 안건을 계속 여기에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연말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히 성동은 장애인 쪽을 저희가 시작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행계획이나 추이를 보면서 평가·모니터링 해서 내년도 직제정원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보겠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할 생각이다.

두 번째 방문간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사실 찾동의 간호사나 돌봄SOS센터의 간호사와는 다른 역할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의료법상의 방문간호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의사의 지시서가 필수적이고 현재 의사 직제는 물론 없습니다만 촉탁의를 위촉을 해서 촉탁의가 해당 방문간호 부분에 대해서 지시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에 따른 방문간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방문간호를 설정하고 있고 물론 그 외에도 내부인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함께 진행합니다만 의료법 관련해서는 그렇다 라고 답하다.

- 조00 이사가 법률검토를 받아봤는지 묻다
- 주00 대표이사가 방문간호를 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의사의 작업지시서를 바탕으로 해서 방문간호를 하고 있어서 별도로 법률적 검토는 필요 없다고 현재 수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사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혹시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답하다.
- 조00 이사가 복지정책실에서 서울시에서 SOS돌봄센터를 하면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참고해서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주00 이사가 부가적인 여러 다른 역할을 하게 됐을 때는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자문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하다.
- 권00 이사가 의료법상 간호사, 의사, 약사, 한의사 이게 의료인인데 의료인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간호행위는 법상 문제가 없고 다만, 처치가 의료에 있어서 의사들이 하는 행위들을 하느냐 그것이 위법인데 지금 재가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 중 의료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의료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의사가 지시서 오더를 내면 그 처치는 의료인인 간호사가 할 수 있게끔 된 것이 현 법상이고 간호사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재가센터에서의 의료범위이고, 체위변경이라든가 드레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의료법상의 가능한 것이고 일반 병원에서 얘기하신 것이 방문간호 서비스는 방문간호사들이 모든 병원에서 다 나가서 하고 있고 그게 의료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의료처치 행위들을 지금 다 하고 있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재가센터 이 정도에서 할 수 있는 처치 행위들은 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수술하거나 이럴 것은 아니고 약 처방을 내거나 이런 것들이 오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다.
- 조00 이사가 SOS돌봄센터 운영을, 제가 그쪽의 운영위원이어서, 하면서 복지건강국과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갖고 했는데 하여튼 잠정적으로는 그냥 동에 배치해서 가는 것으로, 그러나 업무는 분명하게 이런 업무라고 정의해서 가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권00 이사가 복지부에서도 간호 TF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행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의사, 간호사, 조무사 관련해서 업무행위를 나누는 것이, 예를 들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행위에 있어서도 의원급에서는 조무사도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맞다, 아니다로 나누기보다 지금 현 우리 병원 실정에서는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 3급 종합병원급 이런 식의 구분으로 나뉘지게끔 되어 있어서 그 밑에 있는 재가센터나 이런 데는 사실은 기본적인 간호기술 행위면

조무사도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조00 이사가 그래서 법률자문 검토는 필요하다고 하다.
- 권00 이사가 우려되는 것이 간호사나 의료인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보니까 이 수요가 충족될 수 있을까. 지금 간호사 부족현상이 매우 심합니다. 병원을 하면서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제 사견이지만 노르웨이나 핀란드 선진사회를 좀 다녀왔는데 거기도 더 고령화시대니까 정부에서 홈케어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다 간호사들이 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조00 이사가 지역 의사들이 거의 핸들링을 하는 것 같더라 라는 의견을 제시하다.
- 권00 이사가 그러니까 더 넓게 나가면 국가보험시스템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하여튼 그것도 앞으로 저희의 방향일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조00 이사가 보건과 복지를 통합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권00 이사가 지역사회 간호라 약간 그럴 수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조00 이사가 복지영역에는 문제없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의료영역에서는 간호사를 떠나서 의사 의료진 영역에서 문제를 걸 수도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주00 대표이사가 주변 분들의 분석에 의하면 간호조무가 교대근무제인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9시에서 6시로 할 수 있어서 간호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조00 이사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쓰는데 전에는 촉탁의사를 쓰다가 의료법에 보면 의사가 일정반경 내에서 치료사들이 치료행위를 할 수 있어서 병원에 있으면서 오더만 내고 하는 자체도 위법이라는 거지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안 일어나고 걸지 않으면 괜찮은데 걸었을 때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자문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주00 대표이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하다.
- 홍00 이사장이 다른 질문이 있는지 묻다.
- 김00 이사가 보육직에는 보육4급이 5명인데 그게 원장이 몇 명인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묻다.
- 이00 어린이집운영팀장이 보육4급은 원장을 의미하고 보육5급은 6급에서 신규로 들어온 경력교사들이 호봉제로 연봉 테이블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의 승진규정이 3년 근무를 했을 때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초기에 저희가 교사를 선발할 때는 이미 연봉은 호봉제로 주지만 직급은 6급으로 다 채용하는 것으로 된다고 답하다.

- 김00 이사가 보육4급은 원장이 몇 명인지 묻다.
- 이00 어린이집운영팀장이 올해 정원이 5명이라고 답하다.
- 김00 이사가 이00 팀장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묻다.
- 이00 어린이집운영팀장이 일반행정4급이라고 답하다.
- 주00 대표이사가 본부의 팀장역할이고, 원장 정원은 변동은 없다고 답하다.
- 홍00 이사장이 컴퓨터 관련해서 일반5급은 미리 뽑은건지 묻다.
- 주00 대표이사가 이번에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답하다.
- 홍00 이사장이 이번에 공고를 내면 몇 명이 공고가 나게 되는지 묻다.
- 구00 기획관리실장이 160명 정도로 8월중순경쯤에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답하다.
- 홍00 이사장이 9월 달에 최종 다 선발되어서 9월 달에 들어오는 식이 되는지 묻다.
- 구00 기획관리실장이 9월 말쯤은 되어야 확정될 것 같다고 답하다.
- 주00 대표이사가 올해 한 차례 더 채용을 진행하게 된다고 답하다.
- 홍00 이사장이 8월에 뽑힌 분들은 그 역할이 뭔지를 묻다.
- 구00 기획관리실장이 요양보호사랑 장애인활동지원사도 있고, 어린이원장도 있고 일반행정직도 있다고 답하다.
- 홍00 이사장이 이번에 채용된 사람들은 어디서 근무하게 되는지 묻다.
- 구00 기획관리실장이 은평하고 강서에 차례대로 배치를 하고, 일반행정직은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다고 답하다.
- 홍00 이사장이 은평은 언제 개원하는지 묻다.
- 구00 기획관리실장이 은평은 8월 28일 개원예정이고 강서는 9월 말이라고 답하다.
- 홍00 이사장이 은평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묻다.
- 안00 사회서비스운영팀장이 은평은 기본형이라고 답하다.
- 조00 이사가 장애인 의무채용은 채워지고 있는지 묻다.
- 구00 기획관리실장이 현재까지는 3.6%라고 답하다.
- 주00 대표이사가 본부하고 다 합쳐서 3.8%라고 답하다.

- 홍00 이사장이 김00 감사님이 워낙 꼼꼼하신데 이것을 보시고 하실 말씀이 없으신지 묻다.
- 김00 감사가 사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하는 부분이라 특별히 의견은 없는데 아까 조이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 이런 의료법 부분은 아예 모르는데 아까 조이사님 말씀에 저도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방문간호사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의식이 던져진 것은 없었고 다른 부분은 없었던 것 같다고 답하다.
- 조00 이사가 변호사님 중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완전히 의료쪽 관련해서 그쪽으로 집중하는 분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도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업무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홍00 이사장이 김0 이사님의 의견을 구하다.
- 김0 이사가 저는 따로 없는데 아까 조00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줄었는데 내년에는 향후 계획 같은 것이, 이를 테면 대부분 다급으로 되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도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조정되는지 궁금한데 이번에는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당장 필요한 사항들만 되어 있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홍00 이사장이 앞으로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다소 조정이 필요한지를 묻다.
- 주00 대표이사가 올해 채용인력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한번 정했으면 지켜야하고 올해까지는 이 직제정원 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될 것 같고 다만, 내년 이후에 직제정원 규정과 관련해서는 몇 개 센터에 가동이 되고 모니터링이라든가 운영모델을 실체화 하면서 변동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이사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크게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답변하다.
- 홍00 이사장이 금년에는 이렇게 해서 운영한다는 것을 전제해서 우리가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 묻다.
- 조00 이사가 여기 내용은 아닌데 성동재가센터 개소해서 신문에 난 것을 봐서 더운데 고생 많으셨구나, 그렇게 격려를 드리면서 옥의 티라고 할까요, 장애인 편의 시설이 안됐다고 기사가 난 것을 또 봤는데 기본적으로 1층에서 올라가면서 경사로부터 없다는 이야기로 턱이 있다는 것부터 해서 하여튼 여기 본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센터 개소할 때는 장애인편의시설을 기본적으로 고민하면서 가야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주00 대표이사가 죄송합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사실이고 그것을

초기에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신경을 못 썼는데 바로 개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고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하다.

- 홍00 이사장이 그런 게 바로 사회서비스원이 다른 기관과 다르게 기본부터 잘 챙기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의를 종결하겠음을 선언하다.

-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는지 묻다.

( 「네」 하는 위원 다수 )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의사봉3타)

- 홍00 이사장이 다음 이사회는 휴가를 8월 달에 다들 다녀오실 것으로 예정하고 지난 4차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로 9월 18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오늘 바쁜 시간 중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씀하다.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제5차 이사회를 마칩